일본 교과서 검정시기 『고등소학독본』의 동아시아관*

- 역사 서술을 중심으로 -

권희주**
shiawase30@hanmail.net

Contents

Ⅰ. 서론
Ⅱ. 『고등소학독본』의 탄생
Ⅲ. 『고등소학독본』의 구성 및 특징
Ⅳ. 재편되는 동아시아
Ⅴ. 마치며

Ⅰ. 서론

본고는 근대 일본의 교과서 검정시기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1888-1889)에 나타난 동아시아관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888년에 간행된 『고등소학독본』[1]은 1887년에 간행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의 학습을 마치고 연계하여 학습하는 교과서로 전부 8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890년 10월 제2차 '소학교령(小学校令)'의 개정과 '교육칙어(教育勅語)'의 공포로 인해 편집방침이 바뀌면서 1889년 10월 제7권이 간행되는 것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문부성(文部省)에서 검정제도를 시행한 뒤 야심차게 편찬한 독본용 교재로, 『고등소학독본』의 편찬에 앞서 공포된 '소학교령(小學校令, 1886.4)'[2],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小學校ノ學科

* 이 연구는 한국가스공사 알타이언어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1) 본고에서는 1888년 11월에 재판된 『高等小学読本』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2) 1886년 4월 10일 관보(官報)의 '소학교령'을 살펴보면 제1조에 심상소학, 고등소학 2단계 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及其程度, 1886.5)'[3], '공사립소학교 교과용도서 선정방법(公私立小學校教科用圖書採定方法, 1887.3)', '교과용도서 검정규칙(教科用圖書檢定規則, 1887.5)'[4]이 총 망라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883년에 교과서 인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초대 문부대신으로 취임하면서 검정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등소학독본』은 검정제도를 구체화한 여러 법규가 공포된 뒤 간행된 교과서로 편집방침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검정교과서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가이고 도키오미(海後宗臣)[5]와 가이 유이치로(甲斐雄一郎)[6]의 연구는 교육사의 측면에서 『고등소학독본』의 의의를 탐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고등소학독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한국의 『국민소학독본』(1895)의 저본[7]으로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강진호의 연구는 『고등소학독본』이 조선으로 입수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조선의 『국민소학독본』과 일본의 『고등소학독본』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80% 가까이 유사하다는

치를 명시하고 있다.(第1条 小学校ヲ分チテ高等尋常ノ二等トス). 그 이전에는 1881년 '소학교교칙강령(小学校教則綱領)'에 의해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 교육을 실시하였다.(第1条 小学科を分て初等中等高等の三等とす)

3)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지리, 역사, 이과의 학습 내용 및 학습 정도를 명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공포되었던 '소학교교칙강령'과 비교해보면 이 중 이과는 신설된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물리, 화학, 박물, 생리로 나뉘어 있었다.

4) 1887년 5월 7일 관보를 살펴보면 검정규칙의 취지는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는데 폐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으며 문부성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第1条 教科用図書ノ検定ハ止タ図書ノ教科用タルニ弊害ナキコトヲ証明スルヲ旨トシ其教科用上ノ優劣ヲ問ハサルモノトス)

5) 『明治初年の教育 その制度と実体』(評論社, 1973), 『教科書でみる近現代日本の教育』(東京書籍, 2010) 참조.

6) 甲斐雄一郎(2008), 『国語科の成立』, 東洋館出版社 참조.

7) 김소영(2007), 「甲午改革期(1894-1895) 教科書 속의 '国民'」『한국사학보』vol.29, 고려사학회; 강진호(2012), 「'국어'교과서의 탄생과 근대민족주의-『국민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상허학보』36집, 상허학회; 강진호(2013), 「국어과 교과서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국민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국제어문』58집, 국제어문학회; 박승배(2013), 「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편찬자가 활용한 문헌 고증 2: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vol31, 한국교육과정학회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실을 밝혔다.[8] 특히 최초의 국어교과서로 평가받는『국민소학독본』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에서『고등소학독본』의 연구는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고등소학독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검정제도에서 중시되었던 교과서 편집방침이『고등소학독본』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심상소학독본』(1887)과 차별화되는 지리, 역사, 이과의 기술 중 서양 번역교과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역사 부분의 기술이 중국과 조선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 일본의 동아시아관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Ⅱ.『고등소학독본』의 탄생

근대 일본은 메이지천황이 등극한 이래 급격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겪는다. 1872년 프랑스의 학구제를 모방해 지역을 나누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학제(學制)'가 공포되자 적절한 교과서의 편찬은 급선무가 된다. 당시에는 1860년대 미국의 초등교육 교재인 Willson's Reader를 번역하여[9] 교과서로 발행하는 등 서구의 교과서를 번역 출간[10]하는데 힘을 기울였고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도 서구의 지리나 근대과학을 소개하는 것이 계몽운동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에 급속도로 번역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1879년 '학제'가 폐지되고 '교육령(教育令)'이 공포되면서 교과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문부성의 관리이자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의 일원인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麻呂)가 미국을 다녀온 뒤 교육의 권한을 지방으로

8) 강진호(2013) 참조.

9) 한국의 Willson's Reader와 연관한 선행연구로는『국민소학독본』의 과학사적 내용을 비교, 검토한 연구가 있다.(박종석, 김수정(2013),「1895년에 발간된『국민소학독본』의 과학교육사적 의의」『한국과학교육학회지』33호.) 1895년 5월 1일 외부대신 김윤식이 주일공사관 사무서리 한영원에게 일본의 심상사범학교와 고등사범학교의 교과서를 구득하여 보낼 것(旧韓国外交文書 3 日案 3623号 高宗 32年 5月 1日)을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Willson's Reader를 참고한 일본의『고등소학독본』을 그 저본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10) 자세한 사항은 海後宗臣(2010)의 pp.37-48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탁해야한다고 주장하여 '교육령'은 지방의 교육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아직 성숙한 교육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던 일본에서 오히려 이 교육령은 화를 불러 학제가 구축해놓은 질서가 붕괴되자 많은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그 1년 뒤인 1880년 '개정교육령'이 공포되고 3월에 문부성이 편집국을 두어 교과서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부현(府県)에 통지하여 사용을 금지했다.[11]

1883년에는 교과서 인가제도가 시행되어 문부성의 인가를 얻어야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885년에는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취임하여 1886년 3월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 4월 사범학교령(師範學校令), 소학교령(小學校令), 중학교령(中學校令)을 연이어 공포한다. 이는 일본의 근대 학교제도의 기반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시기로 법령에 따라 교과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표1> 참조) 바로 이때 문부성에서 발간한 3가지 독본이 『독서입문(読書入門)』(1권). 『심상소학독본』(7권), 『고등소학독본』(8권 예정, 7권 편찬)이다. 다른 교과서는 공모를 통해 출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세 독본은 문부성에서 직접 발간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독본은 검정시기 민간 교과서에 하나의 표준을 보여주기 위해 편찬한 교과서로 이러한 독본의 출판을 통해 교과서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고등소학독본』의 편집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순차적인 학습'이다. 『고등소학독본』의 편집책임자인 이사와 슈지(伊沢修二)[12]는 문부성의 교과서 편집국장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여러 권 출간하기도 하였다. 1875년에 발간된 『교육진법(教授真法)』[13]은 David Perkins Page

11) 금지서 중에는 자유민권운동을 주장하며 공화정치를 긍정하는 책이나 문부성이 편찬한 대표적인 수신서인 웨일런드(Francis Wayland)의 『수신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가이 유이치로(2008)는 교과서의 편집 방침이 바뀌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운 대학의 총장이었던 웨일런드의 『수신론』(“*The elements of moral science*”)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학문의 권장(学問のすゝめ)』에서 언급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12) 1851-1917. 일본의 교육자. 문부성에 출사한 뒤 1875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음악, 이화학, 지질연구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였다. 모리 아리노리가 문부대신이 된 이후에는 교과서 편찬에 몰두하여 국가주의적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는 한편 진화론을 일본에 소개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타이완에서 일본어 교재를 출판하는 등 식민지 언어교육에도 관여하였다. 대표저서로는 『学校管理法』(白梅書屋, 1882), 『教育学』(丸善商社, 1883) 등이 있다,

13) 1875년에 출간된 이 책의 제3장 '학과의 순서'는 제1절 실물과, 제2절 독법, 제3절 미술, 제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저작을 편역한 것으로, 그는 서문에서 본인이 고심하여 역사와 지리 교수법을 일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수정하여 출간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3장 '학과의 순서'에서 순차적인 학습을 대단히 강조하며 "교사인 자는 먼저 유생(幼生)의 교육에 자연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 순서를 잘못하여 해가 생길 때에는 그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할 것이다"[14]라고 언급한다. 또한 "역사는 지리와 같이 병행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따로 학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8절에 걸쳐 순차적인 학습의 예시를 보이고 역사와 지리의 경우는 끝말잇기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1879년 '교육령'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학교 교과과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 '순차적인 교육'을 소개한 것은 대단히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에『고등소학독본』의 서문에 "이 책 안에는 수신, 지리, 역사, 이과, 농공상의 상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그 주된 의미의 난이도에 따라 번갈아 제시하였다"[15]고 언급한 바와 같이 '순차적인 학습'은『고등소학독본』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주의'적 교육방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사와 슈지는『고등소학독본』을 출간한 뒤 국민교육사(國民教育社)[16]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국가주의'적인 교육방침을 전면에 내세워 '교육칙어'의 보급과 수신교과서의 편찬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은 이미『고등소학독본』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子)이 이를 잘 다스리셔 2천년 남짓 이어져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만국과 부강을 견줄 시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이 제국의 신민인 우리들이 의무를

절 지리학, 제5절 역사학, 제6절 습자, 제7절 작문, 제8절 생리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요령 뒤에 질문과 답을 제시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구적인 교육서라고 할 수 있다.

14) 太闢・百爾金士・白日 (ダビッド・ペルキンス・ページ) 저, 伊沢修二 편역(1875),『教授真法』巻之1, p.25.

15)『高等小学読本』巻1,「緒言」, p.2.

16) 1890년 5월에 설립한 단체로 "충군애국의 원기를 양성, 알리기 위한 것"(국가교육사요령 1항)을 목적으로 했다. 山本和行(2008),「台湾総督府学務部の人的構成について--国家教育社との関係に着目して」『京都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54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하려면 오로지 힘을 다해 학문을 해야 한다.[17]

위의 인용문은 교과서의 가장 처음인 제1권 제1과 '우리나라(吾國)'의 두 번째 문단으로 역성혁명 없이 2천 년간 지속된 일본의 존귀함을 역설하며 천황의 은혜 속에 신민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시기에 당면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문의 당위성을 '제국의 신민'에서 찾으며 개인의 욕망은 배제되고 '의무'만이 부여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집자가 서문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황실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지기(志氣)를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18]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등소학독본』은 황실중심의 국가관이 충분히 반영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고등소학독본』 편찬시기 주요 사항

날짜	교육 관련 법규
1879년	'학제' 폐지, '교육령' 공포
1880년	'개정교육령' 공포
1880년 3월	문부성 편집국 설치, 교과서 편찬 착수
1881년	'소학교교칙강령'
1883년	문부성 교과서 인가제도
1885년	모리 아리노리 초대 문부대신 취임
1886년	교과서 검정제도
1886년 4월	'소학교령'(1차)
1886년 5월	'교과용도서검정조례', '소학교 학과 및 그 정도'
1887년 3월	'공사립소학교 교과용도서 선정방법'
1887년 5월	'교과용도서검정규칙'
1887년	『심상소학독본』 편찬
1888년	『고등소학독본』 편찬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발포
1890년	'소학교령' (2차)

이와 같이 『고등소학독본』은 편집책임자인 이사와 슈지의 교육 철학이 다분히 반영된 교과서로 당시 문부성에서 모범적으로 제시한 편집 방침의 일면을

17) 『高等小学読本』巻1, pp.1-2.
18) 『高等小学読本』巻1, 「緒言」,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기반이 되는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Ⅲ.『고등소학독본』의 구성 및 특징

교과서가 발간된 해인 1888년 5월 30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조간에 다음과 같은『고등소학독본』의 광고문이 실린다.

> 이 책은 본국에서 출판한 심상소학독본에 이어 고등소학에서 독서를 가르치는 용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전부 8책으로, 편찬한 교재는 수신, 지리, 역사, 이과 및 농공상의 상식에 긴요한 사항 등이고 문체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이에 그 1권을 발행한다.[19]

상기의 광고 문구는 실은 1886년 5월 제정된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10조 '독서' 항목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심상소학과에서는 가나, 가나 단어, 단구(短句), 간소한 한자가 혼용된 단구, 및 지리, 역사, 이과의 사항을 넣은 한자 혼용문. 고등소학과에서는 다소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한자혼용문.[20]

광고문과 규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리, 역사, 이과로, 이는 1881년에 제정된 '소학교교칙강령(小学校教則綱領)'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강령에는 소학교의 초등과(3년), 중등과(3년), 고등과(2년)에서 독본은 학술상의 이익이 되는 기사나 생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문장을 함유하는 것을 선택한다[21]고 명기되어 있다. 1886년 제정된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의

19) 1888년 5월 30일「「高等小学読本」巻1／文部省編集局」,『読売新聞』조간, p.4.
20) 1886년 5월 25일『官報』, p.1.
21) 黒羽弥吉 編(1881),『小学校教則綱領』, pp.4-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나, 가나 단어, 단구(短句), 간소한 한자가 혼용된 단구”는 ‘소학교교칙강령’과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고등소학독본』의 특징은 ‘지리, 역사, 이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주가 명확하지도 않고 세분화되지 않았던 “학술상의 이익”이 명확한 학습의 범위와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이 유이치로는 ‘한자혼용문’을 선택한 것은 원칙적으로 한자문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교과의 제체로서 지리, 역사, 이과의 사항을 지정한 것은 ‘동서양 절충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2] 결국 『고등소학독본』은 학습의 범위가 지정됨으로써 ‘단계별 학습’이 실제 적용되었고, ‘동서양 절충주의’를 선택하며 ‘역사’ 서술에 중점을 둔 ‘국가주의적’ 교육관을 기반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고등소학독본』의 항목별 구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고등소학독본』의 구성

	총 수록과	지리	역사	이과
1권	37과	9과(24%)	7과(19%)	10과(27%)
2권	34과	6과(18%)	7과(21%)	13과(38%)
3권	36과	3과(8%)	14과(39%)	13과(36%)
4권	36과	6과(17%)	12과(33%)	12과(33%)
5권	35과	3과(9%)	9과(26%)	10과(29%)
6권	37과	6과(16%)	14과(38%)	12과(32%)
7권	36과	8과(22%)	17과(47%)	7과(19%)

전 7권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역사에 관한 기술이 많고 전체적인 비율에서도 역사서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적인 개괄을 비롯하여 고대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1권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대 흐름에 따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독본의 성격에 맞게 역사적 사실을 문학작품[23]이나 기존의 교양서에서도 발췌하였고 후반으로 가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위인전도 다수 등장한다. 그 내용은 주로 일본사이나, 조선과 중국에 관

22) 甲斐雄一郎, 앞의 책, pp.103-104 참조.
23) 대표적으로 4권의 11과, 17과, 34과는 일본의 남북조시대를 무대로 한 대표적인 역사물인 태평기(太平記)를 발췌, 수록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언급과 미국의 발견에 관한 기술도 있어 당시 역사관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지리는 텍스트의 25%에 못 미치는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위치나 특징, 지형, 인구, 산업에 관한 기술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지리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기본 배경을 설명하고 그 지역이 왜 중요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부연하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항장인 나가사키의 경우는 세 개의 과에 걸쳐 다룰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 발전하는 일본상을 제시하고 특히 4권의 7과 '조약국'에서는 통상체결을 한 서양의 도시를 제시하겠다고 명기한 바와 같이, 국내의 주요도시부터 점차적으로 세계의 주요도시, 근대문명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물리, 화학, 박물, 생리가 통합된 이과의 경우에는 4개의 분야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며 서구의 교과서를 다수 참고한 듯 하나 에도(江戸)시대의 잠수 기구(4권 26과 영기종(泳氣鍾))를 소개하는 등 일본의 앞선 기술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과 서술의 특이한 점은 지리, 역사의 서술과는 다르게『고등소학독본』의 서문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이과의 사항 중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대화체로 나타내어"[24] 기술하고 있다. 형이나 누나가 동생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듯한 대화문체는 기초적인 과학 지식을 함양하는데 주안을 둔 문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고등소학독본』은 '소학교의 학과 및 그 정도'에 준하여 아동의 발달상태에 따라 커리큘럼을 짜고 근대적 지식을 전달하여 국민적 소양을 기르는데 주안을 둔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Ⅳ. 재편되는 동아시아

1870년대는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가 새로이 재편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4)『高等小学読本』巻1,「緒言」,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71년에 체결된 청일수호조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된 평등 조약으로 '책봉, 조공' 관계의 질서가 와해되기 시작함을 알렸다. 또한 1873년 정한론 정변, 1874년 타이완 침공, 1875년 강화도사건 등 동아시아는 새로운 정세를 맞이한 것이다.[25]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소학독본』의 역사기술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일본사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천황에 대한 존외심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학교학과 및 그 정도'에는 기존의 교육 지침인 '소학교교칙강령'의 내용에 '외국과의 교류, 무역 및 세태 문물'[26]이 추가되어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사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과의 문물 교류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어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교과서 내의 '문학의 도래'(1권 30과)나 '불법의 도래'(2권 5과)에는 중국, 조선 3국의 문물 전달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3국의 역학 관계를 문명의 이입을 통해 그려내려 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국가간 일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본에서의 '동아시아'는 "근대 일본의 국제적 활동의 자장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이 일본의 불가결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해"[27] 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양에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던 일본은 교과서 내에 문화번영을 이룩한 서구 여러나라의 문명의 힘을 피력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그와 같은 문명을 일본 또한 이룩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잠재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화중심의 세계관 해체가 선결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5) 박삼헌(2011),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32호, 동북아역사재단.

26) 1881년의 '소학교교칙강령'에는 역사는 중등과에 들어 교수하는데 건국 체제, 진무(神武)천황의 즉위, 닌토쿠(仁德)천황의 검약, 겐페이(源平)씨의 흥망성쇠, 남북조 양립, 풍속의 변천 등을 기술하게 되어 있으며 1886년의 '소학교학과 및 그 정도'에서는 위의 사항과 함께 외국과의 교류, 무역 및 세태 문물이 추가되어 있다.

27) 야마무로 신이치(2005),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아시아 学知」『大東文化研究』제5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6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1 중화중심 세계관의 해체

근대 이전 일본의 인식 속에 세상의 중심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支那)이었다. 그러나 1842년 아편전쟁 이후 그 인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중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내리 패하자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28] 이러한 격동하는 정세를 반영하듯 『고등소학독본』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 이렇듯 인간이 좋아하는 마취성의 것은 이 버섯 뿐 아니라서 술도 담배도 아편도 대마초도 모두 유해 무효한 것인데 법률이나 종교의 힘으로는 좀처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도 국왕이나 승려 등이 애써 담배를 금지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가까운 중국에서는 아편을 금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호나 습관을 일시에 그만두려해 결국에는 한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큰 일이 일어나는 예도 많습니다.[29]

일본은 중국이 맞게 된 대외적인 위기로 인해 세계의 중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서양관을 생성하게 했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아편문제는 당시 일본이 간과할 수 없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아편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존망을 인간의 기호와 결부하며 중국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화사상의 근저에는 새로운 정보의 제공지가 중국이라는 믿음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서양'이라는 새로운 정보지가 등장하자 더 이상 중국은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과의 문물 교류'에서 중국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또한 일본을 대단히 존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술이 등장한다. 2권의 21과 '견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

28) 하정식(2001), 「阿片戦争과 朝鮮・日本」『근대중국연구』제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01.
29) 『高等小学読本』巻2, 「第34課 奇妙ナ菌」, pp.114-11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중국에서도 우리의 견당사를 만나는 데 대단히 정중했기에 사신의 영예 또한 적지 않았다. 지금 그 예를 한 두가지 적어보자면, 몬무(文武)천황 때 견당사로 아와타노 마히토(粟田眞人)를 당나라에 보낸다. 그때 당나라의 주군의 어머니인 무씨(武氏)라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아 국호를 주(周)라 불렀다. (중략) 마히토는 이때 진덕관(進德冠)이라 하는 관직을 받아 보라색 도포를 걸치고 비단 띠를 두른다. 그 의용이 고상하고 거동이 진중했다. 무씨는 사선경(司膳卿)이라는 관직을 내렸다. 마히토는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을 잘 만들었기에 당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송했다. 고켄(孝謙)천황 때에 후지와라노 기요카와(藤原清河)는 견당사로 당나라에 가, 당의 주군이 그 의용을 칭찬하여 우리나라를 군자국이라 하며 화공에게 명하여 그 용모를 그리게 했다.[30]

이는 중국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는 뛰어난 일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학문적으로 뒤지지 않는 군자국임을 피력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적지 않”다며 많은 제도와 문물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밝히고 있는데 그 원인을 당시의 잣은 “왕래”에서 찾고 있다.[31] 바로 그 왕래의 대표적인 예가 견당사로 일방적인 문물의 이입이 아닌, 중국에서도 칭송받을 정도의 대등한 관계를 통한 교류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문물의 원류가 중국이기는 하나 현재 세계의 인정을 받는 산물은 일본의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 옻은 일본, 중국의 산물로 특히 일본산은 최상품이다. 또한 칠기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명물로 외국인이 크게 칭송하는 바이다.[32]

이처럼 같은 산물을 생산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일본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문물이 중국을 통해 이입되긴 하였으나 현재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외국인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상품의 가치기준을 중국이 아닌 서구의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속학독본』에서는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위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당시 문명국으로서 아시아의 필두에 서려는 일본의 욕망을

30) 위의 책, 「第21課 遣唐使」, pp.64-65.
31) 위의 책, p.62
32) 『高等小学読本』巻4, 「第23課 漆ノ話」, p.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 배제되는 조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고등소학독본』에서는 문물의 원류인 중국을 뛰어넘는 문화를 이룩한 일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반면, 그 전달자인 조선은 동아시아의 권력구도에서 배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자의 전래에 대해서는 백제의 왕인박사가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 이보다 앞서 300년 전 스진천황(崇神天皇) 때 임나(任那) 사신 소나카시치(蘇那曷叱知)라는 사람이 일본 조정에 왔고 또한 스이닌천황(垂仁天皇) 때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가 귀화했는데 그 후 진구(神功)황후는 신라를 친히 정벌하고 그 백성(人民)을 잡아 돌려보내신 일이 있었다. 이 모두 아직기, 왕인이 일본에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그 문자만큼은 아마도 그 전에 이미 전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33]

백제의 왕인박사가 한자를 전래했다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로 근세의 학자들의 역사관에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34] 또한 1874년 문부성에서 간행한 역사교과서인『개정 사략(改正史略)』(官版1)의 16대 오진(應神)천황의 항목[35]에는 왕인박사가 천자문을 전래했다는 기술[36]이 있으나 1888년의『고등소학독본』에서는 '천자문'이나 '논어'에 관한 언급 없이 조선이 전달자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진구황후를 통해 직접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문물 전달의 시조인 왕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기존의 설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바로 진구황후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을 동아시아의 힘의 구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

33)『高等小学読本』巻1,「第30課 文学ノ渡来」, p.91.
34) 김선희(2012),「근대 왕인 전승의 변용양상에 대한 고찰」『일본문화연구』vol.41, 동아시아일본학회.
35) 현재에는 진구황후가 15대 천황에서 빠져 오진천황이 15대이다.
36) 文部省(1874),『改正史略』(官版1),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또한『일본서기』(720년)의 계림의 서남쪽에 위치하는 임나국에서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와 진구황후의 일화를 기정사실로 하여 고대 조선에 우위를 점하려는 일본의 욕망을『고등소학독본』에서 명확히 드러낸다.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조선사인 스가와라 다쓰키치(菅原龍吉)의『계몽조선사략(啓蒙朝鮮史略)』(1875)에는 진구황후의 기술이 없으나[37] 그보다 한 해 앞선 1874년 문부성에서 간행한『개정 사략(改正史略)』(官版1)의 15대 진구 황후의 항목[38]에는 삼한정벌을 명기하고 있어 진구 황후의 담론은 관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진구황후는『고등소학독본』1권의 25과 '삼한의 정벌'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메이지정부가 진구황후에 관한 이미지를 강화해가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39]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구황후는 구마소를 정벌한 후, 뜻을 세워 신라를 정벌하고자 남장을 하고 친히 군대를 호령하고 마침내 군을 통솔하여 군함을 타고 출발하셨다. (중략)
>
> 신라의 왕은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그 적이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스스로 배 앞으로 찾아와 한 번의 싸움도 치르지 않고 항복하여 이 때부터 매해 반드시 공물을 헌상하기로 맹세하였다. 황후는 이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신라의 수도에 들어서 창고를 봉하고 그림과 서적을 모으고 창을 그 문에 세워 후세의 표식으로 삼았다. 신라의 왕은 이에 인질을 보내고 또한 비단 종류를 80척의 배에 쌓아 관군으로 하여금 이를 헌상하게 하였다.
>
> 고구려, 백제 두 나라 또한 이 사실을 듣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어 공물을 헌상하였다.[40]

이와 같이 강력한 군주의 모습인 진구황후가 차례로 삼한을 정벌하여, 고대

37) 최혜주(2010),「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한국독립운동사연구』vol.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38) 文部省(1874), 앞의 책, p.3.

39) 당시 진구황후는 근대국민국가의 대표적인 여성이미지로 차용되었다. 예를 들어 1872년에 이루어진 메이지정부의 신지폐에 진구황후가 모델이 되거나 히나인형(雛人形)의 오다이리비나(お内裏雛)도 진구황후 모습의 인형이 출현한다.(졸고(2010),「근대국민국가와 히나마쓰리」『일본어문학』44집)

40)『高等小学読本』巻1,「第25課 文学ノ渡来」, pp.77-7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대 이미 삼한의 우위에 선 일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조선에 대한 명확한 우위의 기원을 고대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힘의 관계를 문물의 전달과 발전을 통해 증명해내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고등소학독본』은 교과서 검정시기를 대표하는 독본으로서 많은 법령들을 충족시켜 문부성이 표본으로서 민간에 제시한 교과서로 검정시기 편집방침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국어교과서로 평가받는『국민소학독본』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고등소학독본』의 편집 방침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편집책임자인 이사와 슈지(伊沢修二)의 교육 철학대로 단계별 학습에 주안을 두어 항목별로 순차적인 학습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주의'적 교육방침이다.『고등소학독본』에는 역사 항목이 권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일본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천황가의 이야기를 서술해 황실중심의 국가관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특히『고등소학독본』에서는 '소학교학과 및 그 정도'에 명기되어 있는 '외국과의 교류, 무역 및 세태 문물'에 주안을 두어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동아시아와 관련된 역사서술은 기존의 문물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시야 속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왕인박사의 문자 전래를 부정하고 대륙의 문물을 직접 도입하는 진취적인 일본의 모습과 그러한 문물을 전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우수한 일본을 교과서 전면에 드러냄으로써『고등소학독본』속의 동아시아는 중화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조선을 배제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세계를 구축해낸 것이다.

『고등소학독본』7권의 마지막 두 개의 과는 '근세의 문명'을 테마로 한다. 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 “국민이 행복과 편리를 향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세문명”의 덕으로 “천황 폐하가 주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41] 문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재편은 『고등소학독본』의 수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 『高等小学読本』巻7, 「第36課 近世ノ文明」, p.1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강진호(2012),「'국어'교과서의 탄생과 근대민족주의-『국민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상허학보』36집, 상허학회.

_____(2013),「국어과 교과서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국민소학독본』(1895)을 중심으로」『국제어문』58집, 국제어문학회.

권희주(2010),「근대국민국가와 히나마쓰리」『일본어문학』44집.

김선희(2012),「근대 왕인 전승의 변용양상에 대한 고찰」『일본문화연구』vol.41, 동아시아일본학회.

김소영(2007),「甲午改革期(1894-1895) 教科書 속의 '国民'」『한국사학보』vol.29, 고려사학회.

박삼헌(2011),「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32호, 동북아역사재단.

박승배(2013),「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편찬자가 활용한 문헌 고증 2: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vol31, 한국교육과정학회.

박종석, 김수정(2013),「1895년에 발간된『국민소학독본』의 과학교육사적 의의」『한국과학교육학회지』33호.

야마무로 신이치(2005),「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아시아 学知」『大東文化研究』제5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혜주(2010),「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한국독립운동사연구』vol.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하정식(2001),「阿片戦争과 朝鮮・日本」『근대중국연구』제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甲斐雄一郎(2008),『国語科の成立』, 東洋館出版社.

海後宗臣(2010),『教科書でみる近現代日本の教育』, 東京書籍.

❖ 투고일 : 2014.07.01
❖ 심사완료일 : 2014.08.01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일본 교과서 검정시기 『고등소학독본』의 동아시아관
- 역사 서술을 중심으로 -

권희주

본고는 근대 일본의 교과서 검정시기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1888-1889)에 나타난 동아시아관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88년에 간행된 『고등소학독본』은 문부성(文部省)에서 검정제도를 시행한 뒤 야심차게 편찬한 독본용 교재로 검정시기 편집방침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국어교과서로 평가받는 『국민소학독본』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고등소학독본』의 편집 방침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편집책임자인 이사와 슈지(伊沢修二)의 교육 철학대로 단계별 학습에 주안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항목은 개론에서 시기별로, 지리 항목은 국내 도시에서 유럽으로, 테마에 따라 순차적인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주의'적 교육방침이다. 『고등소학독본』에는 역사 항목이 권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일본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천황가의 이야기를 서술해 황실중심의 국가관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역사서술의 경우는 1886년 '소학교학과 및 그 정도(小學校ノ學科及其程度)'에서 명기한 '외국과의 교류, 무역 및 세태 문물' 내용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문부성 지침에 추가된 항목으로, 동아시아 3국의 관계를 문물 교류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중화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하기 위해 중국에게 존중받는 일본의 모습을 부각하였으며 문물의 전달자인 조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여 일본을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 지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7권의 마지막 과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행복과 편리'는 문명과 직결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일본의 저력을 드러내려는 집필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고등소학독본, 일본교과서 검정, 소학교학과 및 그 정도, 문명, 국가주의적 교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in *High-Elementary Reading Book* during the Japanese Textbook Authorization Period

- Focusing on Historical Description -

Kwon, Hee-ju

This article considers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in *High-Elementary Reading Boo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textbook authorization (1888-1889).

High-Elementary Reading Book was published in 1888. It was compiled ambitiously as a reading textbook by the Japanese Board of Education after enforcement of the authorization system. This book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ditorial policy of the authorization period. Also, it became the manuscript for *Elementary Reading Textbook*, which is thought to be Korea's first Korean Textbook. For these reasons, the book is worthy of study.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in the editorial policy of *High-Elementary Reading Book*. To begin with, it focused on phased learning, which was an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book's editor, Izawa Syuji's. In historical items, the book was composed from introduction to periodic items, and in geography from domestic cities to Europe. It encouraged phased learning according to theme. Secondly, it established nationalistic educational policy. In *High-Elementary Reading Book,* historical items were the most crucial part. In particular, Japanese history represented a nationalistic view that focused on the Imperial family.

From among thes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historical description of foreign exchange, trade, culture & products, and social conditions specified in *Elementary subjects and its items* in 1886. This description was added to the previous policy of the Board of Educ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it describes the relation among three nations of East Asia, while focusing on exchanging culture and goods. In particular, it deconstructed the China-oriented view of the world, minimized the role of Chosun, and located Japan in the center of Asi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Key Words : *High-Elementary Reading Book*, Japanese Textbook Authorization Period, *Elementary subjects and its items*, civilization, nationalistic education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